

수도권매립지공사, 감축기술 전파 라오스서 기후·물 협력 기반 다져

비엔티안 국제 라운드테이블 참석
아시아 각국 관계자 100여명 참여
말레이시아 등 7개국서 사업 진행
물협의회·농어촌공사와 3자 협약
공동연구·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최근 라오스 현지지를 찾아, 공사가 추진 중인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소개하고 보유 기술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 아시아 지역 관계자들과도 만나 기후·물 분야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2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기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시아국회의 원물협의회(AAWC) 제3차 기후·물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및 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기후·물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행사에는 한국과 라오스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 국회의원, 국제기구, 민간기업,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이번 행사에 해외사업 분야 우수사례 발표기관으로 초청받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소개했다. 그간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며 쌓은 폐기물 처리·자원화 기술과 매립가스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감축사업은 말레이시아와 볼리비아, 방글라데시, 파나마, 가나, 카자흐스탄, 몽골 등지에서 실시 중이다. 폐기물과 바이오가스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7월2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와 기후·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어가고 있다.

발표에서는 공사가 보유한 폐기물 처리·자원화 기술과 국내의 사업을 통해 쌓은 온실가스 감축 경험 등을 소개했다. 또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29일 행사에서는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와 '기후·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의 기후·물 문제해결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세 기관이 협력해 나갈 분야는 ▲아시아 지역 기후·물 분야 현안과 정보 공유 ▲기후·물 관리 관련 기술사업 및 입법·정책 분야 교류 ▲기후물 분야 회의와 학술행사 등 상호 참여 및 협력 ▲기후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공동 연구 ▲국내 기후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기후·물 라운드 테이블 공동 개최 및 참여 등이다.

송병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기후·환경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공사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공사가 축적해 온 폐기물 처리·자원화 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경험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또 앞서 지난달 23일 인천 서수 공사 홍보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폐기물·자원순환 분야 해외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20여 곳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공사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 프로세스 ▲해외사업 추진현황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이해 및 적용 등이 소개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부산항만공사, 피지컬 AI 항만기술 개발

HD현대상호와 피지컬 AI 연구 협력
장비·운영·예방정비 기술 고도화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장비 제조 전문기업인 HD현대상호와 '피지컬 AI 기반 항만 미래기술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산항을 한국형 AI 스마트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앞서 양측은 지난 4월 전남 영암 HD현대상호 본사에서 기술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정례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 항만 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 범위와 방향을 구체화했다.

주요 협력 부문은 ▲스마트항만 솔루션 ▲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한 항만장비 연구개발 ▲항만 운영시스템 연구개발 ▲항만장비 예방 유지보수 기술 연구개발 ▲크레인 부품 고도화 기술 개발 등이다. 특히 이 협약은 기술 적용 범위를 개별 장비에 한정하지 않고, 장비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예방정비 등 유지보수 기술까지 확대했다. 항만운영 전 과정의 관리기술을 개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송상근(왼쪽)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지난달 30일 김재을 HD현대상호 사장과 '피지컬 AI 기반 항만 미래기술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지난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피지컬 AI 항만 전략'에 맞춰, 부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항만 솔루션의 공동 개발과 연구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며 "스마트 항만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을 HD현대상호 사장은 "국내 하역장비 제조 역량과 피지컬 AI 기술을 연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와 항만장비,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분야를 아우르는 상호성 있는 기술협력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기안전공사 경영진, 폭염 대응 특별점검

경북·경남 등 주요 설비 현장 찾아
휴게시설·보냉장구·작업환경 확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폭염 속 외부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경영진이 직접 설비 점검·검사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2일 공사에 따르면 남화영 전기안전공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북·경남 등 영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안전관리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 사장은 지난달 31일 경북 구미철곡지사의 교육시설을 찾아 현장 속 폭염대응 체계 및 작업환경 등을 직접 점검했다. 또 근로자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작업장 휴게시설 상태와 보냉장구 구비 여부 등을 확인했다.

공사는 이날 11일까지 경영진이 직접 경북, 대구, 전남광주 등 주요 설비 현장을 찾는 특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작업 강도·시간 적정성



남화영(오른쪽 2번째) 한국전기안전공사장이 7월31일 공사 구미철곡지사 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전담 관리자 지정 여부 ▲신규·기저질 환 직원 등을 살폈다. 고위험 관리자 집중관리를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과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남 사장은 "안전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앞으로도 경영진이 현장 소통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코트라, 칠레서 495만달러 수출계약 성과

국내기업 32곳·바이어 50곳 참여
K-뷰티·식품 중심 1대1 수출상담
칠레 유통망 통해 중남미 판로 확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에 맞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칠레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양국 경제협력 수요가 높은 한류소비재 및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해 업체·바이어 간 상담을 주선했다. 이 전시상담회에는 32개 국내 기업이 참가했다.

B2B 수출상담회에는 칠레의 대표 슈퍼마켓체인 '쥬보', 종합유통그룹 '팔라벨라' 등 대형 바이어들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1:1 상담이 진행됐다. ▲뷰티 ▲식품 ▲생활소비재 ▲산업제 ▲첨단기술 등 분야별로 구성된 상담장에는 현지에서 칠레뿐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페루 등 중남미 바이어 발주처 50여 개사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총 13건의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등 현장에서만 49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도 도출됐다. 한국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유



지난달 3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한-칠레 비즈니스 파트너십' /코트라

통하는 A사는 칠레 바이어 B사와 스칸케 어 화장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A사는 B사에 스칸케 어 제품의 칠레·중남미 유통·판매 대표권을 주고 B사는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인 '살코브랜드' 입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200만 달러 상당의 수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등을 여러 국가에 수출해 온 C사는 칠레 최대 유통망인 '쥬보'와 총 26만 달러 규모의 가공식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또 상담장 입구에는 식품·뷰티·바이오 헬스 분야 한류소비재 기업 제품 100여 종이 전시됐다. 칠레 소비자와 한국 유통망을 직접 연결하는 '역직구 플랫폼' 전용

관에는 K-팝 굿즈 등이 전시됐다.

우리나라와 칠레는 지난 2003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04년 발효 이후 양국은 소비재, 인프라, 광물 등 분야에서 교역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 한-칠레 교역액은 2003년 약 15억 달러에서 2025년 64억 달러로 급증했다. 주요 교역 분야는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의료기기, 농수산식품·뷰티, 구리·석유제품 등이다.

칠레는 또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세계 1위 리튬 매장국으로,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K-팝·드라마·뷰티·식품 등 K-컬처 인기가 동시에 확산하며 현지 젊은이들 사이 한국 상품 및 문화 소비가 인기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칠레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인프라 개선, 방산 현대화, 에너지 전환에도 적극적"이라며 "FTA 체결 후 22년이 지난 지금 K-제품 수출이 크게 늘고 K-컬처 인기도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실질적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가뭄 속 농업용수 확보 총력

양수장 가동 등 비상체계 강화
저수율 실시간 관할·관계기관 협력

한국농어촌공사가 강우 부족에 따른 저수율 저하에 대응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2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김인중 사장 주재로 가뭄 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소관 이사와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역별 가뭄 현황과 용수 공급 상황,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장기 가뭄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사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뭄 비상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양수장 가동, 하천수 확보, 퇴수

재이용 등 가용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농업용수 확보에 나선다.

특히 단계별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상 상황과 저수율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농업인과의 협력해 현장 여건에 맞는 대응을 추진한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가뭄과 풍수해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기후 위기 상황인 만큼 관계 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사가 보유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농업인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용수 확보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